

주민·관광객 미적 감수성 향상

진부령미술관 '정진흔&서용인 초대전' ... 15일 오픈, 3월말까지

고성군의 관문인 백두대간 진부령 고갯마루에 위치한 진부령미술관에서 '정진흔&서용인 초대 전시회'를 개최한다.

지난 15일 작가와 초청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테이프 컷팅식을 시작으로 3월말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정진흔 40여점, 서용인 30여점 등 총 70여점이 출품작으로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 출품작에서 정진흔 작가는 버려진 도자기 조각, 킷마루나밥상, 경대, 문짝 등을 예술표현의 매체로 삼고, 오브제의 표면 위에 자신의 생활 단편을 보여준다.

서용인 작가의 작품은 시각에 비춰진 사물을 시선의 움직임에 따라 감각화해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던 자아의 모습을 표출시켜 사실적 이미지와 추상적 형식을 한 화면에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진부령미술관은 지난 15일부터 3월말까지 정진흔&서용인 초대 전시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15일 전시회 오픈 행사 모습.

특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외지 관광객의 미적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과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서 미술품을 감상하며 문화적 감동과 여유를 갖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부령미술관은 연간 11,500명이 관람하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변모하기 위해 2010년 3월 10억의 사업비를 들여 리모델링을 추진해 2010년 10월 완공했다.

원광연 기자

가라홀시단(加羅忽詩壇)

겨울 설악산

강 신 용

산위에 하얀 종이처럼 덮여있는
겨울의 설악산을 보았다

푸르른 동해바다를 등지고
새싹처럼 즐기차게 늘어나는
산줄기를 따라가 보니
젊음의 풍경이 마음속에 외닿는다

아무런 변화 없이
늘 그 자리에서
늘 한결같이
누군갈 기다리는 여인처럼
흘러가도 변함이 없는 그곳에서

천릿길 가는 곳마다 새하얀
절정에 이르러가는 산자
오르는 나그네의 마음이
고요하게 이르러 지고 있다

마치 봄이 오듯이

〈시작노트〉

학생으로서 늘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항상 지루하지만 해야 할 일이나간 헤쳐나갔습니다. 일상을 그냥 보내기 아까울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하루 일상과 경험을 시로 표현하면 하나의 작품이 탄생될 거 같아 매일매일 글을 써보고 평가해봅니다. 오늘은 설악산을 멀리서 봤습니다. 되게 조용히 보이고 눈서린 게 이뻐했습니다. 이제는 이것 또한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동광산업고 졸업
-안산대학교 1학년 입학

“DMZ박물관 안보학습장 자리매김”

지난 14일 수학여행 유치관계자 초청 팸투어 ... 전국 학교에 안내문 발송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9백m 거리에 위치한 강원도 DMZ박물관(관장 반종구)은 지난 14일 설악권 수학여행 유치관계자를 초청해 팸투어(사전답사여행)를 개최했다.

설악권 콘도 등 수학여행 유치관계자 27명을 대상으로 관람객 유치증대와 새로운 안보관광지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마련한 이날 팸투어에서는 DMZ박물관의 역사적 탄생배경과 냉전유산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통일전망대·화진포 연계관광 우수성 홍보, DMZ박물관 견학, 체험프로그램 참가 등이 이어졌다.

DMZ박물관은 2009년 8월 14일 개관해 지난해 13만6천명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 3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176개 학교 37,000여명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지로 찾아오는 등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의 상징인 DMZ를 대표하는 안보학습의 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반종구 관장은 “2012년 2월 현재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11,175개교에 수학여행 관람안내문 및 감사서한 발송을 통해 수학여행단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며 “평화와 생명의 땅인 DMZ를 한 눈에 관람할 수 있는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제36차 강원도 향교 전교협의회

제36차 강원도 향교 전교협의회가 지난 15일 오전 11시 간성향교(전교 윤근호)에서 도내 16개 향교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광호 기자



고성기독교연합회 제93차 3.1절 기념예배

고성군기독교연합회(회장 안상희)는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 고성중앙장로교회에서 제93차 3.1절 기념예배를 열고, 나라사랑과 애국정신을 기린다.

원광연 기자